

韓 服 의 歷 史 的 考 察

—Historical Study on Korean Costumes—

石 宙 善
Suk Joo Seon

人類가 살아가는 데는 衣服의 必然性에 서 食, 住와 같이 重要視되고 사람들은 幼稚한 技術이나 樹皮와 草木을 가지고 옷을 만들려 하였고 石製나 骨製로 만든 굵은 바늘 또는 動物의 힘줄로 材料를 이어 옷을 만들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衣服에 對한 創意는 野蠻時代부터 오랜 歲月을 두고 끊임 없이 發達되면서 結實되어 온 것으로 입을 수 있는 옷에 이르기까지에는 긴 歲月과 相當한 課程을 거쳐야만 하였다.

의복을 입게 된 것은 일종의 保護, 裝飾, 呪術, 羞恥 等 구구한 설이 있으나 確實한 例證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 따르는 優劣의 差異도 대단히 가리기 어려웠던 것이다. 따라서 感覺도 人類가 動物의 상태에서 받아 들인 것이나 아닐까 한다.

野蠻生活에서 自然과 싸워가며 먹는 것의 必要성과 몸을 보호한다는 데에서 樹皮와 초목잎에 끈을 달아 입었다는 것은 野性的인 生活에서 오는 外傷과 氣候關係에서 몸을 보호한다는 뜻에서 動物의 가죽으로 몸 전체를 썼는지도 모른다. 이러한 것이 옷을 입는다는 出發點에 있어 實用性에서 오는 보호와 羞恥等을 말할 수가 있고 人類에 共通인 生에 대한 愛着도 여기 起因된다고 할 수가 있다.

氣候 風土가 樣式을 좌우할 수 있는 主要條件으로 옷을 통하여 볼 때에도 南方

型은 개방적으로 單純하게 요소만을 가렸고 北方型은 廢鎖의이면서 몸 전체를 둘러 싸던 것이다.

옷의 발생

未開服의 完成時期는 古代文化의 發達순서가 人種이나 또는 地方에 따라가지를 아니하고 氣候關係上 開放의인 生活이 있는가 하면 어떤 地方에서는 毛皮로 몸을 둘러싼 지극히 單純한 生活속에서 漸次로 다른 地方과 접촉함에 따라 색다른 모양의 옷이 導入되는 식으로 單純한 것을 특징으로 하던 未開服은 時代의 變遷과 더불어 복잡한 민족문화에 침투되어 모양, 織物, 裝飾, 입는 方法 等이 복잡화 되었다.

野蠻生活이 持續되는 동안은 生活도 共同體였고 衣服에 있어서도 개인의 差異가 별로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生産器具가 幼稚한때는 生活도 共同 財產도 共同體로 아무런 투쟁도 없이 平和로웠을 것이다. 모든 器具의 製造法이 改良되고 野蠻時代로부터 어느 程度 전진하였을 때에는 벌써 人類社會에는 複雜한 歷史時代가 전개되고 모든 면에 있어서 階級이라는 것이 생기어 여기 따르는 生産高도 높아지고 財產이 私有化됨으로서 財產差異와 階級差異는 심하여 졌다.

經濟, 權力, 여기 從屬되는 者 社會가 形成됨에 따라 階級の 差別은 衣類上에서

도 뚜렷이 表現되고 衣服은 貧富와 階級, 權力을 表示하는 가장 쉬운 方法이고 그 變化는 富者의 慾望에 따라 促進되었던 것이다.

옷의 發達

어느 時代에나 모양, 織物, 裝身具 등에서 오는 階級과 財産의 差異가 뚜렷하여지고 대부분이 權力層에서 좌우되었던 것이다. 그 중에서도 美的 要素를 간직한 衣服은 그러한면이 強調되고 점점 複雜하여 지면서 地方, 民族, 時代에 따라 多樣한 形態가 탄생한 것이다.

社會的 階級이 뚜렷하여지면서 有閑한 權力階級과 피동적인 勞動階級으로 나뉘고 衣生活에 있어서도 有閑階級の 衣服



은 尊嚴性을 象徵한 호화로움과 안의적인 形態美的 意識은 운택한 經濟와 한가로운 가운데에서 더욱 發達 될 수가 있었다.

庶民階級은 形態도 材料도 庶民이라는 制約 밑에 貴族服에서 뒤떨어진 獨自의인 樣式을 걸어 온 것이다.

모든 양식이 이러하듯이 우리나라 옷은 모양, 색깔, 재료 거이다 上流階級에 制

限되었던 것이다.

新羅時代의 服飾

新羅는 대륙문화를 받아드리는 데는 고구려 백제에 뒤떨어 졌다고 할 수 있으나 그 후 정복사업에 성취하여 眞興王(540—575) 때부터 진출 武烈王(654—660), 文武王(661—680) 때에는 三國統一이라는 歷史的 事業을 完遂하였던 것이다.

여기 따르는 복식에 나타난 신라는 武風的인 면이 강한 동시에 創意的인 수식에 특히 풍부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六部에서 시작된 작은 나라로서 三國을 통합하기까지 이를 신라는 많은 다른 나라 國民과 奴隸를 所有하게 되었으므로 그 지배계급의 권위를 세우기 위하여 뼈이라



하여 聖骨, 眞骨, 또는 品으로 六頭品, 五頭品, 四頭品이라는 신라관념을 確立하여 이 骨品에 속하는 者가 아니면 최고 관직을 못하게 하였고 특히 骨은 世襲的인 신분관념인고로 功勳이 있는 자에게 食品을 주고 昇爵을 시킬지언정 骨은 허락한 일이 없었다.

옛날에 巨大한 墳壙속에 들었던 黃金寶

冠과 帶와 佩物같은 것도 대부분 新羅때 骨階級 인물의 전용물들이었다.

23代 法興王(514—539)이 六部人의 복색을 마련하고 尊卑之制를 定하니 이것이 바로 夷俗과 같았다고 한다.

眞德王 2年(648)에 金春秋가 唐나라에 드러가 玄宗皇帝로부터 衣帶를 받아 들은 것을 계기로 우선 우리나라 男子의 衣服制度를 唐나라제도로 고치고 文武王 4年(664)에 부녀자의 衣服制度마저 정하여 그후 부터 우리나라 衣服制度가 唐나라와 같았다고 한다.

신라의 조복은 흰것으로 하더니 法興王(514—539) 때에 公服은 朱紫의 차례로 하여 大角干으로 大阿湊은 紫衣를 입었고 阿湊에서 級湊은 緋衣를 입었다

大奈麻와 奈麻는 青衣를 입었고 大舍以下는 黃衣를 입고 冠은 錦冠과 緋冠을 썼다.

백성은 바지를 입고 검은 수건을 쓰고 女子는 긴저고리를 입고 머리에는 머리카락을 엮어서 두르고 그 위에 구슬과 진주로 장식을 하였었다.

眞德女王 때에 衣服制度를 고쳐서 眞骨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옷옷, 속옷, 바지, 허리띠, 옷치마, 속치마를 입었다.

옛날부터 신라 사람은 흰옷 입는 것을 즐겼고 옷의 名稱 좃아 지금과는 달리 冠은 遺子禮, 저고리는 尉解, 바지는 柯半, 靴는 洗라고 불렀던 것이다.

男子는 굵은 베바지를 입고 婦女子는 저고리를 길게 입었다고 한다. 婦女子는 머리를 뒤에서 따아서 머리위에 한바퀴 두르고 그 위에 구슬로 장식을 하였고 男子는 머리를 깎아서 팔고 黑巾으로 머리를 잡아 매었다고 한다.

신라 衣服制度는 저이 赭黃色은 禁하였던 것이다.

高麗時代의 服飾

고려 때에도 백성이 흰옷 입는 것을 숭상하였다고 한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백성들이 얼마나 화려한 옷생활을 하였는지 宣宗 3年(1086)에 나라 朝臣들이 上下制度를 뚜렷히 할것을 아뢰는 일 조차 있다. 上下를 가릴 수 없이 混同되어 있는 것은 先王때에 制度를 뚜렷하게 정한 것이없었기 때문이라고 衣服制度를 뚜렷이 할것을 제안하였으나 한때는 上下無等의 極致를 이룬때도 있었다.

睿宗 11年(1116)에 先王代의 禮式에 의지하여 尊卑服飾을 定하라는 命이 내렸었다.

仁宗 9年(1131)에는 庶民은 비단옷을 못입게하고 奴隸는 옷은 물론 釵대같은 것도 못찌게 하였다.

忠烈王 4年(1278)에는 命을 내려 元나라 衣服制度로 입었던 때도 있다.

그 당시 宰相에서 下僚에 이르기까지 머리를 깎지 못하였고 闕內에서는 元나라 衣冠을 갖추고 元나라 임금이나 使臣을 맞은 때도 있었다.

임금에 따라 한때는 衣服制度도 갈피를 못잡고 이것 저것 입은 때도 있다.

忠烈王 25年(1299)에 거듭 白衣와 笠 쓰는 것을 금하도록 하였다.

고려 恭愍王 19년에 元나라 衣服制度를 明나라 衣服制度로 고치고 그 후에 禔王(1375—1388)이 明나라 制度와 元나라 制度를 뒤죽박죽 쓰게 한 까닭에 恭讓王 3年(1391)에 다시 明나라 制度로 고치게 하였던 것이다.

우리나라 衣服制度가 모두 중국에서 들

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몇차례의 변혁을 거치기 까지는 700餘年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다고 한다.

고려조에도 백성은 麻織을 입었고 官의 朝服은 마저로 된 柘黃色의 袍를 입었던 것이다. 고려에서는 처녀가 宮女로 뽑혀서 元나라로 가는 예가 많았고 그 중에서는 元나라의 왕후로 간이도 있었다. 元나라의 貴族이나 上流層에서는 고려의 女子를 맞아 들인다는 것을 큰 자랑으로 삼았던 때가 있었다.

서로 사람이 교류되는 동안에 衣服 또는 飲食등 고려의 風習이 유전되어 갔고 모든 文化는 元나라 生活樣式보다 훨씬 進歩되어 있던 모양으로 그 流行의 힘이 컸었다.

李朝時代의 服飾

우리나라의 모든 制度가 經國大典을 中心으로 움직이었던 것으로 衣服制度도 여기 기본을 세워 덜하기도 하고 혹은 덧붙이기도 하고, 고치기도 하였던 것이다.

宮中에는 吉禮, 嘉禮, 軍禮, 賓禮, 凶禮, 五禮儀를 基本삼아 정해진 것으로 그 法規가 대단히 섬세하게 되어 있어 여기 따르는 衣服制度는 대단히 엄격하였다.

朝臣의 禮服中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禮服으로는 金冠朝服을 들 수가 있다.

金冠朝服은 벼슬 중에서도 品位가 그중 높아야만 입는 옷으로 階級은 一品에서 九品까지 文武官으로 나눌 수가 있고, 文官은 鶴, 武官은 虎의 背背를 달아 所屬의 位置를 表示하였다.

一品에서 三品까지를 堂上官이라하여 領議政, 右議政, 左議政에 속한다. 例를 들

어 一品官은 五梁冠, 朝服, 白絹中單, 赤裳, 蔽膝, 雲鶴金環綬, 犀帶, 佩玉, 牙笏 黑鞋를 갖추어야 禮服으로 입을 수가 있었다. 모든 양식이 이렇게 복잡하고도 엄격하였기 때문에 양반의 몸 가짐이란 무게와 教養을 쌓아 올렸던 것이다.

그러므로 완전한 人格을 갖추기 까지는 知識과 人品을 높여야만 했던 것이다. 兩班은 平素生活에 있어서도 남의 표본이 되어야 했고 옷 生活에 있어서도 品格을 갖추기 위하여 옷옷도 마음대로 벗지를 못하였 던것이다. 사랑에서 잠깐 안방에만 들어가도 창옷을 입어야 했고 상사람이 아니고는 동저고리 바람으로 드나들 수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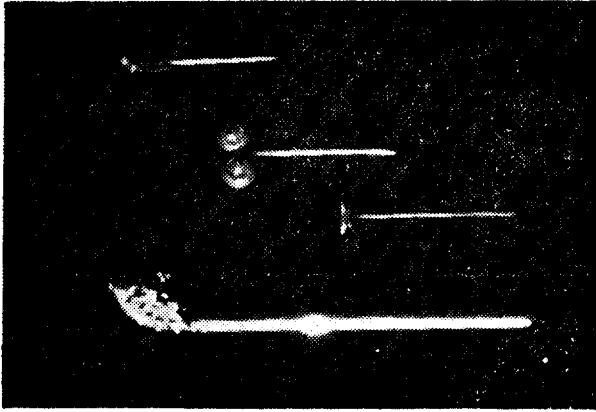
平民의 禮服으로 道袍를 입었는데 道袍는 甲午更張을 前後하여 입었던 옷으로 옷감도 옷 모양도 우리 옷의 基本型이라고 하겠다. 다른 옷들은 紗, 羅, 綾, 緞을 사용하였지만은 道袍만큼은 예나 지금이나 그대로 모시 베로 되어 있다.

階級制度에서 오는 옷 生活은 家庭에까지 波及되어 양반집 부녀자는 삼희장저고리에 치마도 원편으로 입었고 庶民層은 오른편으로 입었다. 그러나 이것도 양반이 집중되어 있는 서울에서 더욱 심하였던 것으로 지방에서는 오른편에 입는 수가 많았다. 과거의 서민층 옷 생활이야말로 검소한 가운데 비단도 무색옷도 못 입었다.

裝身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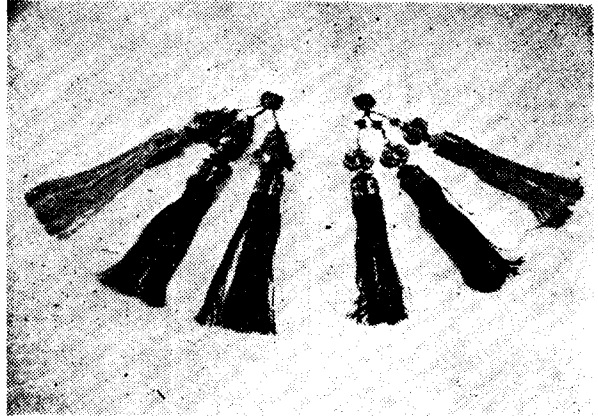
의복에 따르는 부속품에 있어서도 치밀하고 藝術的인 면은 그 時代의 文化水準을 뚜렷이 말해 준다. 宮中이나 班家에서

는 머리에 꽂는 비녀 하나라도 季節에 맞추어 여러 모양으로 호사를 하였던 것이다. 옛날의 머리 장식은 지금 우리들이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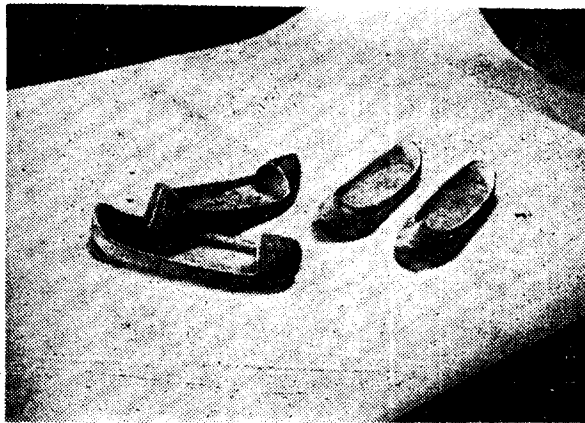
상도 할수없으리만큼 호화로웠다.

노리개도 多彩로운 모양으로 대삼작 밀화불수, 투호삼작, 박쥐삼작, 산호가지, 향집, 연화향낭, 비취발향, 자라잠치 등 노리개중에서도 대표적인 것들이다. 이만큼 종류도 즐비하였거니와 細工에 있어서도 藝術的인면은 지금 사람들이 따를수 없으리만큼 藝術의 極致를 걸었던 것이다.



신 발

신발도 계급에 따라 材料의 差異는 물론 모양도 여러가지로 옛날에 신었던 낫갓신을 비롯하여 宮中이나 班家の 부녀자들이 신는 雲鞋, 繡鞋가 있고 男子들이 신



문에 문헌이나 유물을 통해서도 貴族층의 衣生活 편모는 엿볼수 있으나 庶民층의 衣生活은 기록에서도 유물에서도 찾아볼수 없다는 점이 유감이다.

는 太西鞋, 鹿皮鞋, 黑皮鞋 등이 있었다. 庶民층은 신발도 역시 草鞋만을 신었다. 그 옛날에는 階級意識이 너무 強하였던 관

계로 貴族층은 衣生活도 奢侈의 極致를 걸었으나 庶民 층의 衣生活은 너무나 단조로웠고 이렇다 할 기록이나 유물조차 찾아볼 길이 없다

모든 문화가 宮中에서 부터 發展하였고 少數의 使臣往來에서 받아들인 外來文化는 宮中에서만 맛볼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기 때

동 덕 어 자 대 학
석 주 선(Suk Joo Sun)